

밥상용 수입쌀 내달 유통 국산 둔갑뎐 쌀 시장 혼란

원산지 표시는 내년부터...음식점·단체 급식소 수요 늘 듯

올 수입분 밥쌀용 외국쌀이 오는 3월 하순부터 시중에 본격 유통될 전망이다. 수입쌀의 국산 둔갑, 쌀값 하락 등 시장혼란 재현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들어오는 2006년도 의무수입물량(MMA)은 3만4천429t으로, 지난해 들어오는 2만2천557t보다 53%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하반기에 2007년도분 4만2천928t이 수입될 경우 올해 들어오는 물량은 총 7만7천357t으로 지난해 물량의 3.5배에 이르며, 올 한해 우리 국민소비량 370만t의 2%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2006년도 의무수입물량(MMA) 3만4천429t 가운데 지난 18일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1차 수입분인 중국산 단립종 3등급 540t을 시작으로 잇따라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밥쌀용 수입쌀은 도정 후 보관기간을 줄여 신선도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분산해 반입된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중국쌀 2만3천15t, 미국쌀 1만414t, 태국쌀 1천t 등 전체 물량이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반입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들어오는 2006년도분에는 국내 쌀과 모양이 비슷한 자포니카 계열의 중국산 3등급 쌀과 미국산 1등급 쌀이 작년보다 10% 정도 더 늘어나 국산 쌀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쌀은 현지에 가뭄이 들어 중국쌀로 대체됐다.

특히 지난해 농민단체들과 농민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던 미국산 칼로스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끝난 후인 5월 말쯤 반입된다. 칼로스 쌀은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3단계에 걸친 유전자변형식품(GMO)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밥전문점이나 대형음식점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입쌀의 국내 쌀시장 잠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3월 말부터 수입쌀이 들어오면 지난해와 달리 처음부터 대량으로 팔리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쌀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산 수입쌀의 평균 낙찰가격은 20kg 한 포대당 2만2천660원으로, 국내산 도매가격 4만원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쌀값하락도 예상된다.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해 2005년 40kg(조곡) 1가마가 전년보다 18.5%(8천240원) 감소한 4만4천422원까지 추락했다가 2006년 4만7천469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도분까지 수입될 경우 올 하반기 쌀값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수입물량이 국내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대중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내년부터 실시될 것이어서 올해 수입쌀이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입쌀이 들어오면 지난해와 달리 처음부터 대량으로 팔리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쌀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산 수입쌀의 평균 낙찰가격은 20kg 한 포대당 2만2천660원으로, 국내산 도매가격 4만원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쌀값하락도 예상된다.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해 2005년 40kg(조곡) 1가마가 전년보다 18.5%(8천240원) 감소한 4만4천422원까지 추락했다가 2006년 4만7천469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도분까지 수입될 경우 올 하반기 쌀값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수입물량이 국내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대중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내년부터 실시될 것이어서 올해 수입쌀이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유통시장 개방이후 10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대형마트가 200여개 늘어나는 사이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등의 소형점포는 14만개나 문을 닫을 정도로 소규모 지역 유통업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유통시장 개방이 이뤄진 지난 1996년 75만1천620개로

8년새 구멍가게 14만개 폐업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 마트는 200여개 늘어

추산됐던 중소 유통업소(무점포·슈퍼마켓·편의점 제외) 수는 지난 2004년 61만1천741개로 급감했다. 이 기간 대조적으로 대형마트는 불과 28개에서 276개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소 유통업소의 매출도 급속도로 줄고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타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01년 99.4로 줄어든 뒤 2002년만 102.1로 증가했을 뿐 이후 매년 줄어 2005년에는 94.3으로 떨어졌다.

대형마트의 판매액 지수는 1996년 20.1에서 매년 급속도로 상승, 2005년에는 195.7에 달했다.

국회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제정 논의가 이미 작년 4월부터 본격화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법’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제출됐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정부의 시각차가 커 10개월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의 관문으로 20여년 동안 광주를 찾는 관광객과 프로야구 선수들의 휴식처 역할을 해온 광주 프린스호텔이 대형쇼핑센터로 바뀔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형 건설업체 150억원 미만 공공공사 제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민간발주 공사에도 대형 업체들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의 도급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공사금액이 74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대형 건설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로 190개 정도다.

건교부는 74억원인 대형업체 수주 한한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74억원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74억원(500만 SDR)이상인 정부발주 공사는 외국 업체에도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상향조정할 경우 제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제한을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수주제한을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프린스 호텔, 쇼핑몰로 바뀐다

호텔측, 할인점 업체와 협약

광주시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이 대형 복합 쇼핑센터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프린스호텔측이 최근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할인점 운영업체와 협약을 맺고 프린스호텔 일대에 합작형태로 대형 쇼핑센터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쇼핑센터 규모는 프린스호텔 건물 및 주차장 부지 1천100여평과 인근 1천500여평 등 모두 2천600여평 규모로 영화관 등을 갖춘 대형 할인점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땅 매입 작업은 프린스호텔측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호텔 입주업체들은 다음 달 말까지만 영업을 하게되며 지하의 나이트클럽 등 일부시설은 이미 영업을 그만 둔 상태다.

호텔 관계자는 “처음에는 20년 이상 된 호텔 건물을 리모델링해 영업을 계속하려 했지만 운영적자 때문에 인근 상가를 매입해 쇼핑센터로 전환하기로 하고 점체적인 호텔 영업은 8월까지만 하기로 했다”며 “주변 상가 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쇼핑규모는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태석 기자 bungy@kwangju.co.kr

프린스호텔은 기아타이어즈의 전신인 해태타이어즈 시절부터 타이거즈와 경기를 갖기 위해 광주를 찾은 프로야구 선수단이 즐겨 찾던 곳으로 20여년동안 광주 북구지역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

정태석 기자 bungy@kwangju.co.kr

정태석 광주은행장 연임 가능성 커

추천위, 후보 1순위 선정

정태석 광주은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광주은행 사외이사회의 외부 금융전문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측 인사들로 구성된 행장추천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 모

처에서 회의를 열어 정 행장 등 3명을 차기 행장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행장은 재임기간 중 자산과 당기순이익 등 경영지표를 개선한 점 등을 인정받아 1순위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석 기자 bungy@kwangju.co.kr

“인력·판로·자금난 해소 지원”

신임 박 춘 근 광주·전남 중기청장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3일 부임한 박춘근(48)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중소기업들의 현장예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청이 종합지원행정기관으로 위상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 청장이 강조하는 올해 주요 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역경제 혁신주체들의 인프라 구축 ▲미래기술·선진정보의 기업이전시스템 구축 ▲수요자 및 현장맞춤형 행정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박 청장은 “본청 차원의 각종 지원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중기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체들이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판로·자금난 해소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임실출신으로 전주교·한양대·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를 나온 박 청장은 2000년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형 부품소재센터장으로 근무해왔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원화강세 지속 수출 감소 확산

지속적인 환율하락으로 경공업 제품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 등 일부 중화학공업 제품에서도 수출가격 상승과 수출물량 증가세 둔화 또는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작성한 ‘원화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경공업 제품의 경우 2004년 수출물량 증가율이 3.7%였으나 2005년에는 -16.8%, 2006년 -3.3%를 기록했다.

또 중화학공업제품 가운데 가전제품은 2004년 수출물량 증가율이 11.9%였으나 2005년에는 11.2% 감소로 반전한 데 이어 지난해는 14.9% 줄었다. 승용차의 경우 2004년 36.5%의 수출물량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05년 10.1%로 둔화했으며 지난해는 증가율이 7.8%에 그쳤다.

연환뉴스

황토

휴집대에도 격(格)이 있습니다

학도출발에 꼭 지켜야 할 황토를 지켜주세요!

황토는 흙의 정수를 정제한 것으로,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

광주 전남 이용기능장 1호

가발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 이수대원장 직접시술관리

심는가발 평생!!

대신님네 프리모가발맞춤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